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기업의 사회책임(CSR) 활동이 동반하는 경영비용 증가와 그 효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CSR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범 지구적 대응 확산. 둘째, 사회책임투자 규모 증가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와 관심 증가. 셋째,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 요구 증가, 마지막으로 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ILO, UN Global Compact, OECD가이드라인 등을 통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형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책임표준(ISO26000) 제정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더드 통합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ISO26000은 사회책임(SR) 표준에 관한 지침으로 각 국의 서로 다른 CSR 표준이 국가간의 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SO에서 제정 준비 중에 있다. 이것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CSR에서 기업적 요소인 'C(corporate)'를 생략한 것으로 사회책임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규모와 조직의 성격에 상관 없이 모든 조직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적 용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기업측의 불만이 존재하며, 반대로 국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회책임의 주된 주체는 여전히 기업이어야 한다는 노조나 NGO 등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로 ISO26000 제정 예정 시기가 애초 2008년 10월보다 1년여 늦춰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RI 가이드라인은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CSR 활동을 보고서에 담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표준화된 CSR 보고서를 발간케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가들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가이드라인이 모두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을 반복하면서

2006년 10월에 G3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 2월 기준으로 전세계 1,026개 기업이 GRI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등록했을 만큼,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ISO와 GRI 양자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ISO26000이 기존의 ISO 시리즈와 달리 인증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GRI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자발성에 기초하는 실행방식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GRI 가이드라인과 ISO26000은 경쟁적이라기 보다는 UN글로벌콤팩트(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10가지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한 국제협약)의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보고서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통합 형성은 정부, 기업, 소비자, 노조, NGO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어우러진 합의의 산물로, 이해관계자들 중 어느 한 축이 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기업을 감시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은 CSR의 객체가 아니라 사회책임 논의를 이끌어 온 엄연한 주체인 셈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CSR은 마지못해 등 떠밀려 시행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단순한 기업홍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은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국제적 흐름은 규제가 아닌 경쟁력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매서운 칼바람을 동반한 북서풍이 아닌 훈훈한 바람을 동반하는 남동풍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